



인생 동반자들이 하나로 뽕뽕 뭉친 '군포·의왕시지부'

기술에 문학을 더한 모범 답안

(사)대한제과협회의 주춧돌이나 다름 없는 전국의 지회 지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회원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포·의왕시지부는 기술을 함께 나누고 때때로 문학을 즐기는 모범적인 지부운영으로 친목을 다져 나간다. 글 박소희 기자·사진 주현진

문학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하는 지부

경기도지회 군포·의왕시지부(지부장 이관형)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신도시 '군포시'와 '의왕시' 2개 도시의 제과인이 힘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 지부다. 군포·의왕시지부는 2개의 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활동 구역을 5개로 나누고 구역별로 선임된 이사들이 회원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취임한 이관형 지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 쏟는 애정이 각별하다. 이사회를 통해 임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제과업계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

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모이기도 힘든 임원들이 모여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각 지역의 제과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매달 지부 활동사항을 세세하게 보고하고 이사, 고문 등 지부의 임원들이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 이관형 지부장은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월간 <베이커리>를 꼼꼼하게 읽고 제과업계의 트렌드, 제품배합 같은 주요한 사항을 체크해 이사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

임원들의 자작시는 물론 평소 좋아하는 시, 소설, 음악, 인생의 좌우명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무척 쑥스러워 했던 임원들도 회를 거듭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학에 관심이 많은 이관형 지부장은 "시 낭송 시간을 통해 임원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월간 <베이커리>에도 기술인들이 직접 창작한 시나 문구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요즘 군포·의왕시지부 이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원도우 베이커리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빵내음 따라 봄이

군포 · 의왕시 지부장 이관형

봄이 새록새록
숨을 쉬며 다가옵니다.

봄은 벌써
빵내음과 함께
조용히 곁에 와 있나 봅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새싹은 꿈틀거리며
별빛보다도 곱게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마냥 햇살이 고운 날!
꽃향기보다도 진한
허브빵 내음과 함께

봄은
예쁨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1 임원들이 직접 사물놀이를 배워 회원업소를 돌며 펼치는 이벤트는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 군포 · 의왕시지부는 사랑의 빵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 시청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3 문학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이관형 지부장. 4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이사회에서 월간 <베이커리>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과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한다.

제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군포 · 의왕시지부의 회원업소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 제과점이어서 자칫 떨어지기 쉬운 제품력을 지부가 나서 끌어올리기 위해 이사회 임원으로 윈도우 베이커리 업주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주도 골고루 참여시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지역 제과인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뜻깊은 활동

매달 정기모임을 갖는 이사회에서는 월별, 계절별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안양, 수원 등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해 다른 지회지부와 기술을 공유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체육대회, 적사대회, 야유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영세한 윈도우베이커리를 홍보하기 위해 임원들이 직접 풍물놀이를 배워 회원업소를 돌며 공연을 펼치는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군포 · 의왕시지부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관형 지부장은 “프랜차이즈 업체는 특수절이나 계절에 따라 각종 이벤트 행사를 펼치는데 윈도우 베이커리는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임원들이 직접 사물놀이도 배우고 회원업소를 돌면서 이벤트를 펼쳤더니 매출 상승은 물론 회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가게 홍보 효과에도 한몫 했다”고 자랑했다. 앞으로도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지부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군포 · 의왕시지부는 의왕시에 위치한 사회복지회관 ‘아름다운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사랑의 빵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군포시 주관으로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이발 · 미용 · 목욕 · 음식업 등 다른 위생단체들과 뜻을 모아 펼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웃을 돌아보는 군포 · 의왕시지부의 따뜻함이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는 이관형 지부장은 “거의 모든 시간을 공장이나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술인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문학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도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술과 문학 그리고 사람을 밀어붙여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군포 · 의왕시지부의 힘찬 행진을 기대해 본다. ☺